

## 심의결정에 참여한 윤리위원

### 위원장

고 현 철 (변호사 · 전 대법관)

### 윤리위원

임 종 건 (독자불만처리위원 · 전 서울경제 부회장)

안 병 준 (전 한국기자협회 회장)

장 명 국 (내일신문 사장)

김 기 웅 (한국경제 사장)

허 업 (동아일보 AD본부장)

심 상 복 (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장)

윤 영 미 (한겨레 전략사업국장)

박 록 삼 (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)

노 웅 래 (국회의원 · 민주당)

안 양 옥 (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)

김 영 모 (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 · 문화일보 광고국장)

김 광 현 (조선일보 AD본부장)

우 희 정 (수필가)